

# 시를 통한 가족의 재탄생

박영우(경기대)

## <목 차>

1. 머리말
2. 이 시대의 비극적 자화상, 아버지의 모습
3. 인고와 기다림의 화신으로서의 어머니
4. 동병상련하는 동행, 부부의 모습
5. 시를 통한 소통과 화해의 공간
6. 맺음말

## <국문 초록>

시란 곧 인간에 대한 관심의 산물이고, 진실로 인간을 구제하려는 기록이다. 문학은 삶의 본질에 눈뜬 시력을 갖게 함으로써 자기 성찰과 자기 확대를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아가는 도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인간학이다. 인간과 우리들의 삶에 대해 탐구하는 작업인 것이다. 또한 시는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 가족과 이웃의 이야기이다. 나와 너 사이에 주고받은 상처의 기록들인 것이다.

이처럼 시를 통해 자신과 가족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또한 그것을 한 편의 시로 완성시키는 과정 속에서 시인은 한층 더 성숙된 자아 성장의 성취감과 더불어 가슴 깊이 내재되어 있는 아픔을 치유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 본고에서는 2000년대 이후 심화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전

통적 가치 해체 징후와 현상들에 비추어 현대시에 나타난 ‘가족의 모습’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는 이 시대의 비극적 자화상, 아버지의 모습을, 둘째로는 인고와 기다림의 화신으로서의 어머니의 모습을, 셋째로는 동병상련하는 동행자로서의 부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해의 공간으로서의 시적 의미를 구현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시에 그려진 가족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복원해보고자 하는 치유와 화해의 공간으로서의 시적 의미를 규명하는데 본고의 가치를 두고자 한다.

주제어 : 가족, 가족시, 가족의 재탄생

## 1. 머리말

시는 우리 일상에서 결코 멀리 떨어져있는 장식품이나 사치품 같은 것이 아니다. 시는 우리 삶의 원형이고 본능의 표현인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한 진실의 표현이다. 인간은 시를 통해서 마음속에 쌓여있는 응어리를 표출해냄으로써 자기 정화와 심리 치료의 역할까지 수행해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를 통해서 매 순간 느끼는 끊임없는 감각을 확대, 심화시킴으로써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힘이요, 비결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시 쓰기는 평생 동안 마음의 빈 공간에 희망을 채워나가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란 곧 인간에 대한 관심의 산물이고, 진실로 인간을 구제하려는 기록이다. 문학은 삶의 본질에 눈뜬 시력을 갖게 함으로써 자기 성찰과 자기 확대를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아가는 도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시는 인간학이다. 인간과 우리들의 삶에 대해 탐구하는 작업인 것이다. 또한 시는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 가족과 이웃의 이야기이다. 나와 너 사이에 주고받은 상처의 기록들인 것이다.<sup>1)</sup>

이처럼 시를 통해 자신과 가족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또 그것을 한 편의 시로 완성시키는 과정 속에서 시인은 한층 더 성숙된 자아 성장의 성취감과 더불어 가슴 깊이 내재되어 있는 아픔을 치유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 본고에서는 2000년대 이후 심화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치 해체 징후와 현상들에 비추어 현대시에 나타난 ‘가족의 모습’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가족은 인류사회가 창안해낸 가장 완벽한 게마인샤프트(공동사회)이며 유니언(공동체)이다. 사람들은 전체 사회 속에서 또는 계열샤프트(이익사회) 속에서 발생한 모든 긴장들을 이 가족과 공동체 속에서 해소하고, 피로와 긴장의 중압 속에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재활성화되면서 다시 활동하게 되는 존재인 것이다.<sup>2)</sup> 우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2000년대 이후 시에 나타난 가족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본고에서는 2008년 한국시인협회에서 ‘가족’을 주제로 간행된 사회집 『사철 푸른 어머니의 텃밭』에 수록된 시들과 2005년 이후 간행된 몇몇 시집을 중심으로 현대시 속에 투영된 아버지, 어머니, 부부, 자녀 등 가족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시를 통한 가족 간의 치유와 화해의 과정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 2. 이 시대의 비극적인 자화상, 아버지의 모습

에릭 홉스봄은 『극단의 시대』에서 가족의 해체는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화혁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가족은 가장 훌륭한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장소라든가, 인간은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살게 되어 있고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통용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을 통해 부와 가난의 세대적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남성들이 가정에서 갖는 권위가 사회적인 권력 구조와 연계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족 속

1) 이승하, 『시쓰기교실』, 문학사상사, 2005, 117쪽.

2) 신용하·장경섭, 「세계체제 변동과 가족해체의 경향」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 문화』, 지식산업사, 1996, 10쪽.

에서 사회적인 것이 구축되고 있고, 또한 가족이 지닌 속성이 사회 속으로 확대되어가기도 한다<sup>3)</sup>는 것이다. 문제는 이전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의 존재 가치가 무너지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화되고 왜소화되기 시작하면서 서 가족에 대한 소외가 현저하게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에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IMF 이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현대시에 나타난 아버지상은 대체적으로 험난한 시대를 힘들게 짊어지고 가는 버겁고 우울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비극적인 아버지들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밥 대신 소금을 넘기고 싶을 때가 있다  
밥 먹을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스스로에게 다그치며  
굵은 소금 한 순갈  
입 속에 털어 넣고 싶을 때가 있다  
쓴맛 좀 봐야 한다고  
내가 나를 손보지 않으면 누가 나를 손보냐고  
찌그러진 빈 그릇같이  
시퍼렇게 녹슬어 있는 달을 올려다보며  
내가 나를 질책하는 소리,  
내 속으로 찌렁찌렁 울린다

이승이 가혹한가,  
소금을 꾸역꾸역 넘길지라도  
그러나 아버지는 울면 안 된다  
김충규 「아버지」 전문

인용된 시는 줄지에 직장이나 생업 수단을 잃고 방황하고 고뇌하는 가정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최소한 실직은 하지 않았더라도 ‘밥’ 대신 ‘굵은 소금 한 순갈’을 스스로의 한계를 자책하며 절망처럼 털어 넣을 수밖에 없는 가정으로서의 안타까운 현실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힘든 현실은 “찌그러진 빈

3) 김경현 외 『서양의 가족과 성』, 한국서양사회학회편, 도서출판 당대, 2003, 5쪽.

그릇”처럼 시적화자를 울리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가혹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아버지는 울면 안 된다”며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다. 이 시의 화자처럼 확실히 가족은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구성된 실체’이다.<sup>4)</sup> 그래서 이 시에 등장하는 가장에게 있어 실직 또는 힘든 현실은 본인의 비극이자 한 가정의 비극이자 시대의 비극이기도 한 것이다. 그것은 이제 단순히 시적화자만의 일상은 아니다. 어쩌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편화된 아버지들의 모습일 것이다. 다음 시에서는 그 비극적 현실이 더욱 구체화되어 묘사되고 있다.

과장이 되었다고  
부장이 되었다고  
지점장이 되었다고  
이사가 되었다고 자랑스레 명함을 내밀던 친구들이  
언제부턴가  
오후 네 시가 되면  
동네 골목 어두운 호프집으로 몰려들고 있다.  
누구 하나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는데  
호프집 한 구석을 차지하고 앉아  
속절없이 덤기만한 오늘을  
생맥주 한 잔으로  
식히고 있다.

서글픈 중년,  
노부모도 모셔야 하고  
집도 넓혀야 하고  
아이들 학원비, 배낭 여행에 어학 연수,  
등록금 댈 일이 아득하기만 한데  
이제 조직은  
아니 세상은 더 이상

---

4) 앞의 책, 6쪽.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돈 있을 땐 가장,  
돈 떨어지면 집안에서조차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슬픈 중년의 하루가  
허름한 호프집  
차디찬 유리잔 속으로  
하릴없이 지고 있다.

박영우 「가부장은 지랄-」 전문

이제 앞의 시에서처럼 가장의 현실은 생각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 생각은 냉엄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나이의 많고 적음을 묻지도 않는다. 이 시는 삭막하고 건조한 현대를 허겁지겁 살아내는 중년 가장의 초상을 보고자적 관점으로 리얼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중년 가장의 초상화는 비극적이고 허무적인 색채와 누앙스를 짙게 풍기고 있다. 전통적인 가장의 역할 중 가족 부양의 의무는 여전히 지속되는 것이지만 가장의 권위와 위엄은 찌그러지고 구겨진 것의 상태의 것으로 이미지화되고 있는 것이다.<sup>5)</sup>

가장 열심히 살아가야할 중년의 나이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하고 더욱 슬픈 것은 집에서조차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중년의 현실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인다. 이 시에서 보듯 변화하는 가정의 양식에 신속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남성들의 유연성 부족과, 가정보다 직장 중심의 생활 태도를 강요하는 사회적 요구의 틈바구니에 끼어 허둥대는 존재가 바로 이 시대 중년 가장의 일그러진 모습이다.<sup>6)</sup> 이 시는 앞의 시 「아버지」에서처럼 화자의 내면을 가까운 거리에서 절절하게 토로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상과 장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장면 묘사를 통한 시의식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시와 방법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 시는 산문시의 틀 속에 3대에 걸친 부자간 내면 갈등의 모습을 표현

5) 양병호, 『시여, 연애를 하자』, 시 문학사, 2008, 226쪽

6) 앞의 책, 226쪽

하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아버지는 아랫배가 움찔움찔 아프다고 했다. 절은 땀내 물신 풍기는 귀가에는 자주 옷었지만, 여름 우기. 막노동 공치는 날이면 끄럭끄럭 소리를 내며 누워 있었다. 아랫목에 누워 아랫배 만지다가 내가 들어가면 멋 적은 표정을 지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랫배 만지면서 시선 피해 봉창 사이로 날씨를 보았다. 그러면 나도 머뭇거리다가 건성으로 날씨를 보고 그냥 나왔다.

숫된 나날이었다. 아랫배 한 번 만져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낸 뒤 어느 날 오른 가슴 아래 지독한 통증이 들어오셨다. 통증은 술을 마시다가 쉴 때나 시를 쓰다가 나 잘났다고 우길 때면 심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오른 가슴에 손을 얹고 안방으로 베란다로 돌아다녔다. 돌아다니다가 멀뚱멀뚱 바라보는 아들 만나면 고개 모로 돌려 창 밖만 쳐다보았다. 아들도 말없이 창 밖을 보았다.

서정우 「자화상」 전문

이 시는 2연의 짧은 산문시의 형식 속에 3대에 걸친 가족사를 서술하고 있다. 1연에서는 이미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데 아버지의 삶이란 “아랫배가 움찔움찔 아프다”며 “막노동 공치는 날이면 끄럭끄럭 소리를 내며 누워 있”다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랫배 만지면서” 자신보다는 오직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고단한 삶을 살다 가신 분이다. 그런데 이 시를 시답게 하는 이유는 2연에 있다. 사실 1연에 나타난 삶의 모습은 어찌면 앞 세대를 살았던 서민들의 보편적인 삶의 양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2연에서는 고단했던 아버지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아들인 시인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버지의 노동은 단지 시를 쓰는 작업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뭐 좀 더 배웠다고 “시를 쓰다가 나 잘났다고 우길 때면” 아들인 나 역시 “이상하다. 이상하다 오른 가슴에 손을 얹고 안방으로 베란다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옛날 내가 그랬던 것처럼 시적 화자의 “아들도 말없이 창 밖을 보았”을 뿐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객관적 어조를 통해 가족사의 한 단면을 서사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시를 쓰는 나의 행위 자체

도 그 이상의 고통이 내재되어 있기에 시인 역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고통은 자신으로부터 다시 다음 세대인 아직은 멋모르고 ‘덜똥덜똥’ 내 모습을 ‘바라보는’ 아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어쩌면 시인이나 시적화자의 개인사만이 아닌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객관화된 현실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 시를 시답게 하는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sup>7)</sup>

이상 앞의 시들에 표현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고단하고 위태롭고 절망적인 이 시대의 자아들이다. 그 근원은 자아와 가족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의 약화나 해체적 징후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그런 해체적 현실을 인정하고 무기력하게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시적화자의 현실은 더욱 고통스럽고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다.

### 3. 인고와 기다림의 화신으로서의 어머니

2008년 한국시인협회에서 ‘가족’을 주제로 발행한 사회집 『사철 푸른 어머니의 텃밭』을 보면 사회집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가족 중에서도 유독 어머니를 소재로 한 시들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생존 여부와 상관없이 시인들의 가슴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이 본능적이고 근원적으로 내재해 있음을 시사해준다 하겠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자식들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과 인고의 삶을 시적으로 형상화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오세영의 시는 기다림과 인고의 화신으로서의 어머니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나의 일곱 살 적 어머니는

---

7) 박영우, 「경계에 선 들풀의 시인」, 서정우 시집 『팽이밥을 위한 경례』 시해설, 시문학사, 2005, 111쪽.

하얀 목련꽃이셨다.  
눈부신 봄 한낮 적막하게  
빈 집을 지키는,

나의 열네 살 적 어머니는  
연분홍 봉선화꽃이셨다.  
저무는 여름 하오 울 밑에서  
눈물을 적시는,

나의 스물한 살 적 어머니는  
노오란 국화꽃이셨다.  
어두운 가을 저녁 홀로  
등불을 켜 드는,

그녀의 육신을 묻고 돌아선  
나의 스물아홉 살,  
어머니는 이제 별이고 바람이셨다.  
내 이마에 잔잔히 흐르는  
흰 구름이셨다.

오세영 「어머니」 전문

시인의 가슴에 새겨진 어머니의 모습은 일곱 살 적에는 ‘하얀 목련꽃’에서 열네 살 적에는 ‘봉선화꽃’으로 스물한 살 적에는 ‘노오란 국화꽃’,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스물아홉 살에는 영원히 흐르는 ‘별’이고 ‘바람’이고 ‘흰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다. 유년기의 곱디고운 꽃과 같은 어머니의 모습은 언제나 ‘빈 집을 지키는’ 그리고 ‘울 밑에서 눈물을 적시는’ 인고와 기다림의 화신으로 다가온다. ‘하얀 목련꽃’처럼 눈부시게, ‘연분홍 봉선화꽃’처럼 설레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고단하고 질박한 그리고 고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여자로서 한 어머니로서의 삶의 내면을 꽃을 통해 형상화시킴으로써 안타까움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어머니는 결국 온갖 풍상을 겪고 성숙한 그윽한 향기 풍기는 가을 저녁의 ‘국화꽃’이 되어 식구들을 위해 ‘등불을 켜드는’ 위대한 존재가 되고 있

다. 그럼으로써 어머니가 켜든 등불은 사후에도 아직껏 꺼지지 않고 영원히 가족의 곁을 지켜주기 위해 날이면 날마다 흐르는 ‘별’이고 ‘바람’이고 ‘구름’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 시에서는 ‘맷돌’이라는 치환 대상을 통해 어머니의 가족에 대한 헌신적 사랑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맷돌을 돌린다  
손가락으로 흘려넣는 물늑두  
우리 전 가족이 무게를 얹고 힘주어 돌린다  
어머니의 늑두, 형의 늑두, 누나의 늑두, 동생의 늑두  
눈물처럼 흘러내리는 늑두물이  
빈대떡이 되기까지 우리는 맷돌을 돌린다  
(중략)  
우리의 허기를 채우는 것은 오직  
어머니의 맷돌일 뿐  
어머니는 밤낮으로 울타리로 서서  
우리들의 슬픔을 막고  
복풍을 막는다  
늑두껍질을 보면서 비로소 깨친다  
어머니의 맷돌에서  
지금도 켜켜이 흐르고 있는 것  
물늑두 같은 것  
아아, 그것이 사랑이었음을!

김중해 「어머니의 맷돌」 부분

이 시에서 반복되는 “맷돌을 돌린다”라는 정경 묘사는 “어머니는 앞에 서고/ 나는 뒤에서 리어카를 밀었다”(「부산에서」)라는 정경묘사와 함께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이들은 물론 삶의 어려움을 섬세하게 사실적으로 전하는 환유적 이미지의 기능을 한다. 말하자면 “우리 전 가족이 무게를 얹고 힘주어” 돌리는 맷돌은 소년 김중해가 밀고 그의 어머니가 끌던 “리어카”와 마찬가지로 그의 가족이 이끌어가야 하는 힘겨운 삶의 풍경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요

소, 그 풍경을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내는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하여 “리 어카”와 마찬가지로 “맷돌”은 작지만 소년 김종해의 삶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환유적 이미지의 역할을 수행한다.<sup>8)</sup>

다음 시는 유년의 기억들을 옛날 영화를 보듯 추억처럼 재생시키면서 어머니의 가족들에 대한 진한 사랑을 현재화시키고 있다.

꼭박한 하루 분의 곡괭이질에 지친 아버지 삭신을 노골노골하게 지지게 해주던  
승승 뚫린 가슴으로 불바람 일으켜 살아라 살아라 따끈한 용기를 일렁이던  
눈 내리는 겨울 초상집 마당에 무더기로 피어올라 얼은 문상객들 녹여주던  
기어코 녹아내려야만 할 슬픈 팔자를 지닌 눈사람의 단단한 심지가 되어주던  
세상살이에 지쳐 앓는 몸살과 오한을 취안하게 하여 눈부신 아침을 열어주던  
시금 털털 푸옥 익은 김치에다가 콩치찌개 끓여 허약한 식욕을 부추켜주던  
우중충한 세월의 구들장 은근짜로 땀혀 젖은 식구들 고슬고슬 말려주던

만능의 전천후 몸빼 같은  
연탄이여.  
마침내 하얗게 속 타버린  
어머니여.

양병호 「연탄」 부분

이 시에서의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 희생의 화신으로 그려지고 있다. “만능의 전천후 몸빼 같은/ 연탄이여./마침내 하얗게 속 타버린/ 어머니여.”라고 하여, 인간(가족)에게 봉사적으로 복무하고 중국에 가서는 하얗게 타버리고 만 ‘연탄’의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으로 치환함으로써 고통과 갈등의 세계를 화해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sup>9)</sup> 특히 1연에서 산문시의 형식을 통해 구구절절이 구체화시키고 있는 어머니의 희생적이고 고단한 현실들이, 연탄불이 환하게 타오르듯 자식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로 강하게 의미 전환을

8) 장경렬, 「세상의 모든 “엄마”를 생각하며」, 김종철, 김종해 2인 시집 『어머니, 우리 어머니』 시해설, 문학수첩, 2005, 141쪽.

9) 백수인, 「과거와의 소통과 따뜻한 화해」, 양병호 시집 『구봉서와 배삼룡』 시해설, 고요아침, 2009, 122쪽.

이루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대시에 등장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공통적으로 자식들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과 인고의 삶을 시적으로 형상화해내고 있다. 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대체로 동물적 본능에 가깝다. 이성적으로 다가오고 그려지는 어머니가 아니라 태아적 모태 본능의 시적 발산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무조건적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모습은 ‘꽃’, ‘맷돌’, ‘연탄’ 등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의 치환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동병상련하는 동행, 부부의 모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족의 핵심 구성 요소는 부부이다. 결혼제도에 의해 남녀가 부부 관계를 맺게 되고, 자녀와 더불어 핵가족의 형태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가족의 형태일 것이다. 그 구성원의 중심은 과거와 현재,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또한 가장은 자기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가족을 이용하기도 했고, 가족의 장래를 위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 이유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부부 사이도 과거의 종속적이고 조력자적인 관계에서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부부간의 갈등과 가족 해체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시인협회 사화집』에 실려 있는 부부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살펴보면 물론 작품을 쓴 시인의 연령적 한계가 있기도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서로에 대한 연민이나 걱정, 위로, 안타까움 등을 주요 모티프로 표현하면서 결국은 한 몸이 되어 한평생 동행하고자 하는 반려자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로 아무것도 모르고 만나서  
물고 빨고 10년  
으르렁대기 10년  
사는 것이 싸우는 것인지

싸우는 것이 사는 것인지  
 10년, 또 10년 넘으니 뒤섞여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거울을 보며 서로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자기라고 우기네.  
 부부로 살다보면  
 저절로 지천명知天命하고  
 저절로 이순耳順되네  
 이제 여보!라고 부르지 않아도  
 미리 알고 움직이네.  
 서로 따로 태어났다가  
 죽을 때는 함께 합장되네.  
 박정진 「부부」 전문

이 시에서 보는 것처럼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일이십  
 년 부대끼며 살다보면 어언 ‘저절로 지천명’이 되고 ‘이순’의 나이가 되는 것이  
 다. 부부생활은 인생의 큰 줄기이고 술한 세월 새잎이 나고 또 지듯이 그런  
 속에서 인생이 성숙되고 완성되어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부부로 살다  
 보면/ 저절로 지천명知天命하고/ 저절로 이순耳順되네”라는 시행들에서 알  
 수 있듯이 부부로서의 삶은 사적인 결혼 생활을 넘어서 각자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게 하고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인식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다음 시에서 보는 것처럼 부부가 겪는 노년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만은 않다. 직장생활로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퇴를 하고 되돌아  
 본 아내의 모습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가득하다.

명퇴를 하고부터 아내가 아프다  
 세상만큼 큰 바이러스가 아내를  
 세상으로부터 면역력을 차츰 잃게 한다

신열과 신음이 거대한 한숨으로  
 뚝뚝 떠다니는 한기의 방  
 단절된 온기 삭신을 후비는 외풍에  
 아내는 아프다, 아프다고 말한다  
 바람이 든 아내의 가슴  
 흐를 수 없는 간절한 혈액들이  
 표적지를 관통한 탄알소리로 웅웅거린다  
 소금기로 절여진 아내의 손과 발  
 풍랑에 줄 끊어진 부표로 흔들린다  
 밤맞처럼 세상을 잃어버린 아내  
 아내가 아프다 내 안에도 아프다  
 권혁제 「아내가 아프다」 전문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세상의 흐름 속에 떠밀려 명예퇴직을 선택한 화자의 마음만큼이나 아내의 마음에도 ‘세상만큼 큰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점점 세상으로부터 떠밀려가는 듯한 ‘풍랑에 끊어진 부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년의 현실이 부부에게는 너무나 시리게 다가오고 있다. 그런 세월의 풍랑 속에서 아내의 손과 발은 소금기로 절여 고운 모습을 잃어가고 있고, 화자 또한 ‘내 안에도 아프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처럼 부부는 같은 병을 앓으며 동병상련하고 또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행인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부를 제재로 한 시들에 나타난 주제의식들은 대체적으로 부부간에 느끼는 연민과 안타까움을 배면에 깔면서, 그래도 끝까지 따뜻한 반력자로서 동행하고자 하는 시적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결국 가족의 해체가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임에도 부부를 제재로 한 시편들에서는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갈등을 치유하고자 하는 시인들의 정서가 지배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 시를 통한 소통과 화해의 공간

오늘날 제도로서의 가족은 분명 비판되고 있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족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가족제도에서 기원한 억압에 괴로워하면서도 문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족 관계와 제도를 형성해가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가족 안에서 산다는 것이다. 여전히 가족은 인간 삶의 근원적인 단위인 것이다.<sup>10)</sup>

다음 홍금자 시인의 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가족이란 ‘떼어낼 수도 잘라낼 수도 없는’ 혈육이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가시고기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랑과 희생의 존재인 것이다.

잎맥 속 실핏줄 같은 혈육

차마

떼어낼 수 없는, 잘라낼 수도 없는

세상의 어떤 무기로도

끊어낼 수 없는 인연의 끈

붉은 핏줄로 하여

다시 돌아와

서로가 서로에게

가시고기가 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남은 진액의 잔을 들어

그 머리 위에 보석처럼 뿌려주고 싶은

내 가족이란 이름

홍금자 「가시고기처럼」 전문

이 시에서는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한국적 가치관이 잘 표현되고 있음을

10) 박영택 외, 「가족, 화폭에 담기다」, 『가족의 비뻥』, 서해문집, 2009, 109쪽.

알 수 있다. 가족은 “떼어낼 수 없는, 잘라낼 수도 없는/ 끊어낼 수 없는 인연의 끈”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시고기가 될 수밖에 없는// 보석처럼 뿌려주고 싶은/ 내 가족이란 이름”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혈연적 끈끈함과 희생적 가치관이 시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한 인고와 희생과 굴곡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이란 이름은 결국 단단한 보석처럼 찬란히 빛나는 소중한 귀중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김후란 시인의 시에서 표현되고 있는 그런 단란하고 행복한 가족의 풍경을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우리집 네모난 방들은  
 저마다 다른 얼굴로  
 치장을 하고  
 저마다의 향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밭그레 뺨이 고운 우리 가족들  
 거실에서 식탁에서 침실에서  
 노상 쏟아지는 웃음소리 음악이 되어  
 천장을 울리고  
 창 밖으로 새어나고  
 레이스 커튼 하르르 날리고  
 피어나는 화분에 빛이 넘칩니다  
 정겨운 낡은 풍금처럼  
 언제 보아도 편안한  
 우리 가족

김후란 「우리 가족」 전문

앞의 시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물론 일 년 삼백육십오일 매일 매일이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족 구성원들이 시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그런 가족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갈 때, 그런 마음가짐을 품고 살아갈 때 가족의 모습은 보다 환한 모습의 꽃으로 피어날 것이라는 시인의 소박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지 시인의 소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도 한 것이다. “정겨운 낡은 풍금처럼/ 언제 보아

도 편안한/ 우리 가족”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해를 위해서 시가 얼마나 효과적인 힘을 발휘하는지 다음 두 편의 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내가 방문을 열면  
어머니의 지우개질은 시작된다.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어머니는 항상  
내 글씨가 바르지 않다고 하셨다.  
날마다 지워지는 백지 속 나의 글씨  
날마다 커져가는 어머니의 검정지우개

지워진 글씨 자국을 따라가는 내 연필을  
어머니의 검정지우개가 뒤쫓는다.

지우개 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지우개 똥이 되어 떨어지고 .....

그렇게 어머니의 방구석  
내가 볼 수 없는 곳에  
어머니는 그것들을 모아두신다고 하셨다.

어머니의 지우개가 검정색인 이유는  
그들을 모아 지우개를 만들기 때문이란단다.

어머니의 지우개는  
내가 방문을 열면 점점 커진다.  
서보경 「검정 지우개」 전문

이 시는 현재 대학 2학년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이 고등학교 때 쓴 시이다.

이 시를 읽다보면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갈등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다. 그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밤낮으로 노심초사하시고 또 못마땅하여 간섭하려하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이 ‘검정 지우개’라는 시적 대상을 통해 비유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 이 모녀의 경우는 사춘기까지 함께 겹쳐 힘들어했던 과정을 시 쓰기를 통해 효과적으로 극복한 경우라 하겠다. 딸은 딸대로 자신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생각들을 시를 통해 표출시킴으로써,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딸의 시를 통해 다시 한 번 자신과 딸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불편한 관계를 화해의 공간으로 이끌어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다음 시는 군대에 간 아들을 생각하며 쓴 어머니의 시인데,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성이 전혀 시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한 평범한 어머니를 위대한 시인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몸 여는 소리 낮설음과 함께  
 사내 만들자니  
 터지는 눈물 샘물  
 흠먼지 가라앉히고,

다듬어지지 않은 ‘필승’ 소리에  
 귀 번쩍 띄어보니  
 눈 앞에서 멀어져만 가는  
 텅 빈 주차장이네.

저마다 무사안일 기원하며  
 트렁크 속 가득 채워 시동 걸고  
 네 바퀴의 설움은  
 어찌 나 혼자뿐이라.

김경임 「그해 사월은」 전문

앞의 시에서 보는 것처럼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의 애달픈 심정이 ‘텅 빈 주차장’이나 아들의 ‘무사안일을 트렁크 속 가득 채워’놓고 시동을 걸고 가

다보니, 군에 간 아들의 모습이 자동차 '네 바퀴의 설움'으로 다가온다는 어머니의 마음은 단순히 이 시를 쓴 어머니의 마음만은 아닐 것이다. 모든 어머니들이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아픔과 걱정을 안고 살지만,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절절하고 절실한 어머니의 마음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으로써 가족의 소중함을 시적으로 더욱 강하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시는 가족에 대한 사적 감정을 보편화된 정서로 자연스럽게 시에 풀어냄으로써 독자에게 공감의 폭을 넓혀주고 있는 것이다.

앞의 시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는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소통과 화해의 공간으로 이끌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가 단순히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장식하는 화려한 수사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인간의 진정성을 되찾게 하고 또 본성에 충실하게 함으로써 자아는 물론 가족과 이웃 간을 진실하게 이어주는 감동적 소통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 6. 맺음말

이상 본고에서는 2000년대 후반에 발표된 현대시에 나타난 통한 가족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를 통해 자신과 가족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또 그것을 한 편의 시로 완성시키는 과정을 탐구해봄으로써, 시 속에 내재된 가족의 의미를 규명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또한 시를 통해 표현된 가족의 모습을 통해 성숙된 자아 성장의 성취감과 더불어 가슴 깊이 내재되어 있는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적 가능성도 타진해보고자 했다.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현대시에 표현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고단하고 위태롭고 절망적인 자아들이다. 그 근원은 자아와 가족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의 약화나 해체적 징후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그런 해체적 현실을 인정하고 무기력하게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시적화자의 현실은 더욱 고통스럽고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다.

둘째로, 2008년 한국시인협회에서 ‘가족’을 주제로 발행한 사회집 『사철 푸른 어머니의 텃밭』을 보면 사회집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가족 중에서도 유독 어머니를 소재로 한 시들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생존 여부와 상관없이 시인들의 가슴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이 본능적이고 근원적으로 내재해 있음을 시사해준다 하겠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자식들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과 인고의 삶을 시적으로 형상화해내고 있다. 또한 현대시에 등장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공통적으로 자식들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과 인고의 삶을 시적으로 형상화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인이나 시적화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대체로 동물적 본능에 가깝다. 이성적으로 다가오고 그러지는 어머니가 아니라 태아적 모태 본능의 시적 발산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무조건적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모습은 ‘꽃’, ‘땃돌’, ‘연탄’ 등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의 치환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로, 부부를 제재로 한 시들에 나타난 주제의식들은 대체적으로 부부간에 느끼는 연민과 안타까움을 배면에 깔면서, 그래도 끝까지 따뜻한 반려자로서 동행하고자 하는 시적화자의 의지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결국 가족의 해체가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임에도 부부를 제재로 한 시편들에서는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갈등을 치유하고자 하는 시인들의 정서가 지배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로, 시는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소통과 화해의 공간으로 이끌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가 단순히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장식하는 화려한 수사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인간의 진정성을 되찾게 하고 또 본성에 충실하게 함으로써, 자이는 물론 가족과 이웃 간을 진실하게 이어주는 감동적 소통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상 현대시에 나타난 가족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가족 간의 소통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소통의 도구로서의 시적 역할과 가능성을 진단해보자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연구이다. 본 논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후속 연구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 문헌〉

- 김경현 외 『서양의 가족과 성』, 한국서양사회학회편, 당대, 2003.  
김종철·김종해 2인시집 『어머니, 우리 어머니』, 문학수첩, 2005.  
문학과사회연구회, 『문학과 현실의 삶』, 국학자료원, 1999.  
박영우, 『1인치의 사랑』, 도서출판 이유, 2007.  
박영택 외, 『가족의 빅뱅』, 서해문집, 2009.  
서정우, 『팽이밥을 위한 경례』, 시문학사, 2005,  
신용하·장경섭,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 문화』, 지식산업사, 1996.  
양병호, 『시여 연애를 하자』, 시문학사, 2008.  
양병호, 『구봉서와 배삼룡』, 고요아침, 2009.  
이승원, 『한국 현대시 감상론』, 집문당, 1996.  
이승하, 『시쓰기 교실』, 문학사상사, 2004.  
이지엽, 『현대시 창작 강의』, 고요아침, 2005.  
오규원, 『현대시 작법』, 문학과지성사, 1999.  
전영태, 『쾌락의 발견, 예술의 발견』, 생각의나무, 2006.  
한국시인협회, 『사철 푸른 어머니의 텃밭』, 황금알, 2008.

〈Abstracts〉

## Family's Rebirth through Poetry

Park Young-Woo

Poetry is at once the product of interest in human beings and the records about true relief of human beings. Literature is a path to looking into the essence of life, developing self-reflection and self-enlargement and finding oneself as he or she really is. In addition, poetry is a study about human beings, that is, it is a research of human beings and their lives. Poetry is a story of one's self and his or her family and neighbor. It is the records of scars between them.

While a poet tries to understand his or her self and the identity of family, he or she can feel self-growth and enjoy happiness of healing scars seated deep in mind.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ature of modern family' in view of family dissolution which has been deepened since 2000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body the nature of family in 4 aspects: first, father's image, a tragic self-portrait of this age - second, mother's image, an avatar of endurance and waiting - third, husband and wife's image as fellow travellers - lastly, a place of reconcili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among family members. This study is focused on finding out the poetic meaning of family as a place of treatment and reconciliation, where one can restore life to the original state.

Keywords : family, family's poetry, family's rebirth

이 논문은 2010년 12월 27일에 투고되었으며, 2011년 2월 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1년 2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